

『韓國水産誌』의 조사방법과 통계자료의 문제점[†]

이 근 우*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학과

The Research Process and the Problems in Statistics of *The Chronicle of Korea Fishery*

Kun-Woo Rhee*

Department of Histo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

Abstract

This paper is to survey the research process and the problems in statistics of The Chronicle of Korea Fishery. The contents of The Chronicle were researched by two groups. One group is the managers of every province, the other group is the officers of every county. The managers performed the literature investigation research and field study and also arranged the reports from the county officers. But the managers seemed not to pay the full attention about the consistency of contents. The main contents about fishery are the number of coastal households and population, the number of fishery households and population, the number of fishing boats and fishing net. The body of The Chronicle and the table of fishing affairs in the appendages must be carefully compared to use the statistics. Though these statistics lack the consistency, the number of fishery households and boats deserves the attention. The fishing households account for less than 3% of all households, and about one third of fishing households has fishing boat.

Keywords : *The Chronicle of Korea Fishery*, Statistics of household and population, Fishing household, Fishing boat

I. 서 론

『한국수산지』는 1908년부터 1911년에 걸쳐

간행된 조선 수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이다. 일
본에 의한 조사이기 는 하지만 조사내용이 다양
하고 그 양도 방대하여 1910년을 전후한 시기의

Received 6 November 2014 / Received in revised form 15 December 2014 / Accepted 17 December 2014

[†] 이 논문은 2013년 부경대학교 자율창의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428, kwrhee@pknu.ac.kr

조선의 수산업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907년에 통감부의 관제 개편이 이루어졌고, 대한제국의 농상공부에 수산국이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5개년에 걸쳐 전국의 수산업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한국수산지』는 일본에 의한 조선의 수산업 현황을 종합 정리한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¹⁾. 일제는 이것을 통하여 조선 수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일본어민으로 하여금 조선 연해에 진출하게 하고, 나아가 조선 어업을 통제할 수 있었다²⁾. 따라서 우리 학계에서는 『한국수산지』를 이용하여 당시의 수산업을 복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해 왔다³⁾.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수산지』의 내용을 통하여 구체적인 조사작업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인구 및 어업 관련 통계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한국수산지』라는 방대한 자료가 편찬되었지만, 구체적인 조사과정에 대한 정보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수산지』의 자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방대한 조사사업의 결과이고 또한 1910년을 전후한 조선 수산업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⁴⁾. 『한국수산지』를 연구자료로 쓰

고자 할 경우 자료가 갖는 특징과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수산지』에 보이는 통계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수산지의 군별 기재와 조사방법

『한국수산지』는 1908년에 1권이 출간되었고, 1910년에 2권과 3권, 1911년에 4권이 각각 출간되었다. 조사를 수행한 핵심적인 인물을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일본 최초의 수산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水産傳習所⁵⁾ 출신들이었다⁶⁾. 이들이 각 구역을 분담하여 집필하고 이를 편집하여 『한국수산지』로 출간한 것이다(Table 1). 조선의 연안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수산업의 실태를 단기간에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한국수산지』의 서문에 의하면 조사에 착수한 것은 1907년(隆熙 원년, 明治 40)이고, 1908년(隆熙 2)과 1909년(隆熙 3)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함경북도부터 평안북도에 이르는 해안의 실태를 담은 『한국수산지』 2권과 3권이 출간된 것이 1910년이므로, 실제로 조선 해안의 현지 조사작업이 수행된 것은 불과 2년 정도의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⁷⁾.

1) 이근우(2012), 「명치시대 일본의 조선 바다 조사」, 『수산경영론집』 43-3, 1~22.

2) 이영학(2011), 「통감부의 조사사업과 조선잡탈」, 『역사문화연구』 39, p.242.

3) 조창연·김학태(2005), 「『한국수산지』를 통해 본 1910년경 충남 서해안 지역 수산업에 관한 경제지리학적 고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1, 153~169.

강재순(2011), 「『한국수산지』 편찬단계(1098년)의 전통어업과 일본인 어업」, 『동북아문화연구』 27, 129~149.

심민정(2011), 「『한국수산지』 편찬시기 부산 지역 일본인 거류와 수산활동」, 『동북아문화연구』 28, 573~595.

신보매(2010), 「『한국수산지』를 통해 본 부산 경남지역의 어업 현황」,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 11-2.

이예지(2010), 「『한국수산지』의 통계자료와 문제점」,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 11-2, 85~107.

4) 이예지, 앞의 논문, 85~107.

5) 후에 水産講習所로 개칭하였고, 東京水産大學을 거쳐 현재는 東京海洋大學이 되었다.

6) 이근우(2011), 「한국수산지의 편찬과 그 목적에 대하여」, 『동북아문화연구』 27, 105~120.

7) 『한국수산지』 3권의 서문에서 한국정부 시대에 조사한 자료에 의거하였다고 하였다(『한국수산지』 3권 例言, p.1). 한편 일본의 수산지에 해당하는 『日本水産捕採誌』는 明治 19년(1886)에 착수하여 明治 28년(1895)에 탈고되었다(『일본수산포채지』, 1912, 서문) 일본의 수산지는 그밖에도 『日本有用水産誌』 『日本水産製品誌』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The Researchers by Province of *The Chronicle of Korea Fishery*

Province	Area	Name	County	
Hambuk		Sato ⁸⁾	Kyunghung etc.	
		Konomi ⁹⁾	Kyunghung etc.	
		Kojima ¹⁰⁾	Sungjin ~ Kyungsung	
Hamnam		Otsubo ¹¹⁾	Danchun etc.	
		Kojima ¹²⁾	Younghung Bay	
Gangwon ¹³⁾		Masabayashi ¹⁴⁾	Ganglung etc.	
		Nakanishi ¹⁵⁾	Gansung etc.	
Gyungbuk		Hayashi ¹⁶⁾	All area	
Gyungnam	Eastern	Hayash		
	Center & is.	Kimura ¹⁷⁾	Changwon etc.	
	Western	Toyama ¹⁸⁾	Namhae etc.	
	Eastern	Togashi ¹⁹⁾	Eastern	Anchovy
Junnam	South-eastern	Toyama	Gwangyang etc.	
	South-western	Togashi	Wando etc. ²⁰⁾	
	Jeju Is.	Yoshizaki ²¹⁾	Jeju Is.	
	North-western	Oba ²²⁾		
Junbuk		Oba		
Chungnam		Ono ²³⁾	Taeon etc.	
		Takatsuma ²⁴⁾	Seochun etc.	
Gyunggi		Kawamura ²⁵⁾		
Hwanghae		Masabayashi		
		Matsuo ²⁶⁾		
	North-western	Higuchi ²⁷⁾		
Pyungnam		Higuchi		
Pyungbuk		Ikeuchi ²⁸⁾		
			County's reports	

8) 조사자는 佐藤周次郎이고 조사구역은 慶興 鍾城 富寧 會寧 鏡城 明川 吉州 城津으로 되어 있다. 『한국수산지』 2권 자료, p.2. 『한국수산지』 제1권에서는 함경북도 조사자가 佐藤周次郎으로 나와 있지만, 2권에서는 許斐兵治와 小島省吾가 함경북도 조사에 참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9) 조사자는 許斐兵治이고 조사구역은 慶興 富寧 會寧 鏡城이다.

10) 조사자는 小島省吾이고 조사구역은 城津 梨洞에서 鏡城 漁大津이다.

11) 조사자는 大坪與一이고 조사구역은 端川 北青 洪原이다.

12) 조사자는 小島才一이고 조사구역은 永興灣 연해이다.

13) 강원도 관찰도청이 올린 通川 高城 襄陽 三陟 蔚珍 平海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올진군수 劉漢容이 제출한 「江原道蔚珍郡輿地略論」도 참고하였다(『한국수산지』 2권 자료, p.6).

14) 조사자는 正林英雄이고 조사구역은 江陵 襄陽 杆城 高城 通川이다.

15) 조사자는 中西楠吉이고 조사구역은 杆城 巨津에서 平海까지이다.

16) 조사자는 林駒生이다.

17) 조사자는 木村廣三郎이고 조사구역은 昌原 巨濟 鎭海 龍南 泗川 固城이다.

18) 조사자는 遠山龜三郎이고 조사구역은 南海 昆陽 河東이다.

19) 조사자는 富樫恒이고 조사구역은 順天 麗水 突山으로 於蘭浦에서 南海에 이르는 지역이다.

20) 조사구역은 莞島 珍島 務安 및 南西岸이다.

21) 조사자는 吉崎建太郎이고 조사구역은 제주도이다.

22) 조사자는 大庭弘雅이다.

23) 조사자는 大野潮이고, 조사구역은 泰安 唐津 沔川 牙山 海美 瑞山 鰲川이다.

24) 조사자는 高妻政治이고 조사구역은 舒川 庇仁 藍浦 保寧 鰲川 結城 瑞山이다.

25) 조사자는 河村省三이다.

26) 조사자는 松生猪三男이다.

27) 조사자는 樋口律太郎이다.

28) 조사자는 池内猪三郎이다.

아울러서 조사자에 의한 편차, 조사여건의 편차 등 다양한 이유로 판단해 봐도 『한국수산지』에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할 수 있다.

1. 군별 기재방식

이제 실제로 조사된 내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국수산지』 2권 경상북도 영일군과 경상남도 울산군, 『한국수산지』 3권의 전라남도 해남군과 충청남도 당진군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네 군은 각각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에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한 곳이었다. 행정구역상으로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각각 한 군씩 선정한 것이다. 수록 내용에 있어서 4개의 군은 거의 비슷한 분량이다.

『한국수산지』의 이들 군에 대한 『한국수산지』의 기재에서 각각의 차이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별 기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각 군마다 첫머리에 연혁, 경역, 하천, 장시, 호구, 물산, 구획을 기록하고 읍면 별로 연안 마을의 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대략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부로 들어가서 보면 각 항목이 모두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 영일군에서는 하천과 호구에 대해서 군의 개략에 자세히 기록하였으나 다른 군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영일군에는 물산에 대한 내용이 없는 반면 다른 군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주요 물산을 기록하였다. 특히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동부 즉 강원도 이남의 해안지역은 林駒生²⁹⁾이 조사책임자였는데, 군별로 기재방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군별로 조사의 精度에서 큰 차이가 난

다. 충청남도 당진군처럼 각 마을의 戶口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라남도 해남군처럼 호구는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 해남군에서는 설망의 설치방법 등에서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당진군에서는 魚箭 등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도별 기재 사이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도 안의 군별 기재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영일군의 경우는 읍면 아래 연안의 마을 하나하나 대해서 항목을 설정하고 그 마을의 정황을 기술하고 있지만, 같은 경상북도에 속하는 영해군과 영덕군에서는 면 단위가지만 기록하였으며, 영해군에서는 유일하게 丑山을 독립 항목으로 설정하였고, 영덕군에서는 마을 항목을 아예 설정하지 않았다.

셋째, 『한국수산지』의 본문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2권 이하의 말미에 있는 「漁事一覽表」와 서로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점에서 본문의 조사자와 「漁事一覽表」의 조사자가 서로 달랐음을 보여준다. 또한 「漁事一覽表」 내에서도 군별 조사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는 「漁事一覽表」의 조사자가 군별로 독자적으로 조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연안의 각 군이 제출한 어촌포어업 사항 조사보고서에 의거한 것으로, 개별적인 사항이나 수치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예외적이다³⁰⁾.

아울러 『한국수산지』가 조선의 수산업 상황을 조사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地理誌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해안의 형상, 해저의 토질, 포구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어호 어업 및 제염 등 수산업 일반의 정보는 반드시 풍부하다고 할 수 없다.

29) 이근우(2011), 「한국수산지의 편찬과 그 목적에 대하여」, 『동북아문화연구』 27, 112~113.

30) 구체적인 예를 들면, 평안남도 안주군의 경우 본문에서는 沙五浦 老江浦 元造浦 公三浦를 언급하고 있으나, 「어사일람표」에서는 公三浦 元造浦 鶴市浦 新設里 西興里의 총호구와 어호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한국수산지』 제4권 478~481 및 「어사일람표」 p.23).

오히려 농업 현황, 농작물의 종류 및 생산량, 포구의 수출입 품목과 물량까지 기록한 경우도 있어서 조사가 수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수산지』의 기본조사는 군별로 기초 조사를 수행한 담당자가 있었고, 다시 도별로 통감부 혹은 조선해수산조합의 기수 및 기사인 책임자가 현지를 조사하는 한편, 군 별 조사보고서를 수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 별 책임자가 직접 현지를 조사한 사례로는 강원도의 경우 강릉, 양양, 간성, 고성, 통천은 농상공부 기수 正林英雄이 조사하였고, 같은 강원도의 간성군 거진에서 평해군 지경까지는 통감부 기수 中西楠吉이 조사하였다. 한편으로 통천, 고성, 양양, 삼척, 울진, 평해 각 군은 강원도 觀察道廳의 어업조사보고에 의거하였다³¹⁾.

그러나 도별 조사책임자가 군 별로 조사된 내용을 반드시 도 단위로 통일해서 정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수산지』의 가장 기본적인 편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의 현황에 있어서도, 어업에 종사하는 戶口에 대한 조사는 소홀한 편이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Table 2와 같다.

이러한 차이를 수산 관련 정보라는 측면에서 좁혀서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수산지』에서 최소 기재단위는 마을(촌락)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과 관련된 내용을 망라하면 상대적인 위치, 주변 지형, 해안 지형, 해저지형, 인접 마을과의 거리, 총호수, 인구, 어호수, 어선, 그물, 수산물의 종류 등 실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각 마을의 기재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다 갖추고 있지 않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Table 3과 같다.

개별 항목으로 선택한 서수라, 주문진, 법성포, 가의도, 대연평도 등은 가장 기재가 충실한 사례를 뽑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별 기재와 마찬가지로 마을 별 기재에서도 내용의 차이가 상당한 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수라와 주문진에서는 해저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가 하면, 주문진과 법성포에서 인

Table 2. The Changes in County Record in *The Chronicle of Korea Fishery*

Contents	Gyungbuk Yongil	Gyungnam Ulsan	Junnam Haenam	Chungnam Dangjin
History	○	○	○	○
Boundary	○	○	○	○
River	○	×	×	×
Market	○	×	○	○
Census	16,931 per	Japanese only	×	×
Products	×	Agricultural, marine	Main products	Agricultural, marine
Section	○	○	○	×
Town	Buk-myun	Kangdong-myun	Hanam county	Kosan-myun
Village	Pohang	Jungja	Samjung	Tangjin
Household	400	68	×	21
Fishing household	×	×	×	×
Boat	7 boats	9 boats	×	×
Fishing method	×	○	○	×
Net	○	○	○	×
Weir	○	×	×	○
Fishes	○	○	○	○
Weeds	×	○	×	×
Salt	○	×	○	○
Salt products	20,000 bags	×	5,000,000 geun(斤)	×

31) 『한국수산지』 2권 자료, p.6.

Table 3. The Contents by Village in The Chronicle of Korea Fishery

Contents	Hamnam Seosura	Ganwon Jumunjin	Junnam Bupsung	Chungnam Gaii Is.	Hwanghae Yeonpyung Is.
Location	Western salience	×	Chilsan rapids	2 nmiles from Mado	Haeju bay
Terrain	Low and moist	Hilly districts	×	Circumference 8km	Circumference 12km
Land route	44km to Kyunghung	×	Near from county	×	×
Sea route	4km to Ungi	×	Convenient by ship	Sea route	45nmiles to Incheon
Coastal land form	×	East bay	Curved coast	Cliff, sea beach	Tideland
Sea bed	×	×	travelable by ship	Sunken rock	Mud, sand
Anchorage	Sailboats	Steamboats	Small steamboats ³²⁾	Small steamboats	×
Households	45	83	500	35	170
Populations	273	×	×	100	550
Fishing households	×	20	7	Mainly fishery	Sidework 70 ³³⁾
Fishers	×	×	×	100	×
Fishing boats	8	8	7	5	23 ³⁴⁾
Fish catching	Longline	×	×	Pole and line	Fishboats
Fishing area	South 8km	4~5nmiles	×	Sand and gravel seabed	Coastal waters
Depth(fathom)	10~20	140~150	×	12	8~17
Nets	Kind, location, fishes	Gill net	7 big nets	×	Fish fence
Season	×	Cod Oct.~Feb.	Mar.~Feb.	May~Aug.	Croaker Apr.~Jun.
Catch	-	2,000~1,000 cods	3500 won	20fishes/day	Sail fishboat 1500~3000won/season
Process	Sole compounding	×	Croaker compounding ³⁵⁾	Salting mussel	Fresh salting
Price	-	-	Croaker compounding 15~16won/1000fishes	Laver 8jun/100leaves	Croaker 4~18won/1000 ³⁶⁾
Farm land	120 day plowings	×	×	Field 80patches	×
Crop	Barley, bean	×	×	×	Barley, wheat, bean, millet
Marine product	Salmon, cod, pollack, herring, skate, kelp	Cod, Japanese mackerel, anchovy	Croaker	Croaker, mussel, oyster, laver	Croaker etc.
Indigenous product	Kelp	×	Croaker	Croaker	
Etc.	×	×	Tideland	Japanese hatred, potable water	Assembly area of fishboats

구나 어로 형태를 다루지 않았다. 서수라에서는
 여기 어획량 및 어가 등의 정보가 결락되어 있으

며, 농업과 관련된 정보도 일정하지 않다. 법성포
 와 가의도에서는 그물 설치에 관한 정보가 없다.

32) 100톤 미만의 기선이 정박할 수 있다고 하였다(『한국수산지』 3권, p.171).

33) 농업과 어업을 겸업하는 戶가 70호이고, 船乘業이 100호라고 하였다(『한국수산지』 4권, p.315).

34) 소연평도의 배를 포함한 수치이다(『한국수산지』 4권, p.314)

35) 한 乾場에서 7만 마리의 조기를 건조하며 그 기간은 출하하는 장소에 따라서 가감하지만 짧게는 5~6일, 길게는 20일이라고 하였다. 건조 방법 및 건장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한국수산지』 3권, p.173)

36) 1同은 1000마리이다. 최저는 14원이고 평균적으로는 16~18원이라고 하였다(『한국수산지』 4권, p.319).

2. 조사방법

『한국수산지』의 조사방법은 무엇보다도 『한국수산지』 각 권의 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특히 『한속수산지』 2권의 경우에는 서문에 자료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농상공부 기수 및 통감부 기수 및 기사들이 직접 현지를 조사한 자료, 다음으로 연해 각 군수가 제출한 「어촌포어업사항조사보고서」, 셋째 참고서류, 넷째 참고지도가 있다. 특히 셋째로 든 참고서류는 34종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직접 수산업에 관련된 것으로는 『한해통어지침』, 『한국어업조사보고』, 『조선해수산조합보고』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군 별 조사와 수산업 관련 기수 및 기사가 직접 조사한 두 가지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군 별 기재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군수들이 제출한 「어촌포어업조사보고」 자체가 균질적이지 않았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수산지』 3권의 경우에도 각 지역의 조사를 분담한 통감부 및 농상공부, 조선해수산조합의 技手들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 이외에도 新義州理事廳이 제출한 평안북도 수산조사보고, 연안 각 군수가 제출한 「어촌포어업사항조사보고」 등을 활용하고 있다³⁷⁾. 『한국수산지』의 본

문과 「어사일람표」의 편집 과정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또한 『한국수산지』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조사방법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간조시에 갯벌에 남아있는 물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항해할 수 있다든지, 해남에서 완도까지 얼마라는 등의 수치는 직접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얻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직접 연안 마을에 상륙하여 각 마을의 수산업의 실상을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호수는 자세히 기록하였으나,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배 위에서 마을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그 마을에 몇 가구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으나 그 중 어업에 종사하는 호구가 얼마인지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해와 동해에서 실제 조사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 내용의 차이가 커진 것이다. 한편으로는 서해는 갯벌이 넓기 때문에 배를 부리는 것도 어렵고 또 갯벌에 어패류 등을 채집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동해안과 비교하여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선의 수나 어민의 수가 적었던 것도 그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시 특히 서해의 연안 마을에 직접 상륙하여 수산업 현황을 조사할 만한 충분한 시간도

Table 4. The Process of Editing

<i>The Chronicle of Korea Fishery</i>				
Overall	Editors			
Contents	Body			Table of fishing affairs
Province	Researchers	Editors		
County	Report on findings	Visit report ³⁸⁾	Literature materials ³⁹⁾	Governor's reports

37) 『韓國水産誌』 3권·4권 資料, p.3.

38) 편집자의 순회기록으로는 『한국수산지』 2권에서 편집주임인 熊田幹之介의 경상북도 장기군 구룡포로부터 압록강까지의 순회기록을 참고하였음을 밝혔고, 3권과 4권에서도 편찬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순회기록을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39) 참고한 문헌 자료로는 『東國輿地勝覽』 『高麗史』 『三國史』 『大韓地誌』 『東國文獻備考』 『東國通鑑』 『東國史略』 『邑誌』 『日韓交通史』 『韓海通漁指針』 등 33종에 이르고, 지도로는 『海圖』 『大韓輿地圖』 『郡圖』 『通信線路圖』 『燈臺年報附圖』 등이 있다(『한국수산지』 2권, 7~10.).

없었고, 당시 일본인 조사자가 살해당하는 등의 사건도 있어서 상륙해서 조사하는 일을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특히 전라도나 충청·경기도 해안과 같이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은 더욱 조사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과 달리 전라도 충청도 등의 수산업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고한 것은 당시의 실상이라기보다는 조사 방법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함경도 및 강원도와 같이 해안이 단조롭고 연안 마을에 접근이 쉬운 곳에서는 어호뿐만 아니라 어획량까지 자세히 기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면, 동해안에 비하여 서해안의 조사가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 등지에서는 면 단위만 기록하고 개별적인 연안 마을을 다루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보면, 주로 군함이나 조선해수산조합 소유의 순시선(순라선), 어선 등을 타고 연안을 다니면서 해안 지형 등을 관찰하고 수심을 재고 큰 배를 댈 수 있는 항구인 경우에는 타고 간 배로 직접 접안 상륙해서 호구 조사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⁴¹.

그래서 『한국수산지』 각 권의 첫 머리에는 수십 장의 포구 및 조업 현황 등에 대한 사진이 실려 있는 것이다. 직접 접안할 수 없는 포구인 경우에는 해상에서 망원경 등으로 관찰하거나 작은 배를 내려 접안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은 포구인 경우에도 포구의 뒷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들이 종종 보이기 때문이다⁴². 또한 해상에서 만난 일본 어선으로

부터 어황 등을 물어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인 조사 이외에도 군의 행정 계통을 통해서 파악·보고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도 확인된다.

Ⅲ. 『한국수산지』 통계자료의 문제점

1910년대 초반까지는 아직 조선의 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단계였다. 여러 기관이 조선의 호구를 파악하였으나 각 조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⁴³. 특히 1904년에서 1906년 사이의 조선의 인구통계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추정치이다. 이후에도 각종 통계에서 근사한 수치가기는 하지만 서로 다르게 파악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호구 통계자료가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수산지』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면, 『한국수산지』가 어떤 호구자료를 사용하였는지 또한 『한국수산지』 자체의 자료는 정확한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수산지』의 호구자료가 갖는 특징과 어호 어선 등의 수산 관련 통계자료는 정확한 것인지를 조사과정과 연관시켜 알아보도록 한다.

1. 호구자료

먼저 『한국수산지』에 보이는 도별 호구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자. 조선의 인구를 본격적으로 조사한 것은 1907년이며 그 결과가 『韓國戶口表』이다. 조선의 호구에 대한 자료를 연도순으로 정리해 보면 Table 5의 「조선의 호구 변화」와 같다⁴⁴.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통

40) 朝鮮海水産組合 技手이자 육군 보병 예비역 중위였던 松生猪三男이 延安郡 甑山島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韓國水産誌』 1권, 서문).

41) 조사방법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는 경우는 葛生修亮의 『韓海通漁指針』(黑龍會, 1903)이다. 그는 부산에서 원산까지 육로로 어업 현황을 관찰하였는가 하면, 朝鮮漁業協會에 적을 두고 협회의 巡邏船을 이용하여 당시 일본인들이 조업할 수 있던 四海를 모두 관찰하였다(『韓海通漁指針』 緒言, 1~4).

42) 『韓國水産誌』 각 권의 첫머리에는 당시 포구의 풍경, 조업 광경, 염전, 등대, 시장, 조선해수산조합 본부 등을 촬영한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다.

43) 政府財政顧問本部(1907), 『韓國戶口表』, 「호구조사비교표」, p.2.

44) Table 5에 제시된 시기의 인구에 대해서도 다른 자료들이 있다. 예를 들어 『最近朝鮮事情要覽』은 명치 44년(1911년) 6월말의 조사치로 2,972,105호 13,539,218명이라고 하였다. 『國民年鑑』(國民新聞社(1917), 民友社)에서는 1912년 말의 호수 및 인구는 각각 2,964,113호 15,169,923명이라고 하였다.

감부 시기에 조선 호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극히 불완전했고 서로 다른 자료가 통용되던 상황이었다. 다만 이는 호구조사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조사에서 누락된 인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1910년의 조선의 호수 및 인구는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또한 어느 정도로 정확히 파악하였는지 알 수 없다. 1911년 6월 말에 조사한 통계 자료를 이용한 『最近朝鮮事情要』(조선총독부, 1912)에서는 호수 2,792,105호, 인구 1,3539,218인으로 나타나 있다⁴⁵⁾.

가까운 시기의 통계수치이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最近朝鮮事情要』의 통계치는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이므로 실제 상

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수산지』의 통계치도 호수에서 약 40만, 인구에서 약 500만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인구 약 970만이라는 수치는 1910년대 초까지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인식하고 있던 조선의 인구조로 생각된다. 또한 1910년 조선의 실제 인구는 최소 1,500만 이상에서 최대 1,75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⁴⁶⁾.

『한국수산지』 1권의 개관에서 제시한 호구수(Table 6)는 1907년 5월의 조사에 의거한 『한국호구표』⁵⁴⁾와 가장 근접한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⁵⁵⁾. 우선 전자에서는 2,322,230호, 9,638,578인으로 되어 있으나, 후자에서는 2,333,078호, 9,781,671인으로 되어 있다.

Table 5. The Change of Population Census in Korea

Year	Household	Population	Change	Source
1904	2,350,000	8,000,000	—	『朝鮮移住案内』 ⁴⁷⁾
1904		10,530,000	2,053,000	『韓國地理』 ⁴⁸⁾
1907	2,333,087	9,781,671	- 448,329	『韓國戶口表』 ⁴⁹⁾
1909	2,787,679	12,489,621	2,707,950	『朝鮮大邱一斑』 ⁵⁰⁾
1910	2,749,956	13,128,780	639,159	『朝鮮經濟年鑑』 ⁵¹⁾
1911	2,813,925	13,832,376	703,596	『世界年鑑』 ⁵²⁾
1912	2,885,404	14,566,783	734,407	『新撰世界地理』 ⁵³⁾
1913	2,964,113	15,169,923	603,140	『朝鮮經濟年鑑』
1914	3,033,826	15,620,720	450,797	『朝鮮經濟年鑑』
1915	3,027,463	15,957,630	336,910	『朝鮮經濟年鑑』
1916	3,072,092	16,309,179	351,449	『朝鮮經濟年鑑』

45) 조선총독부(1912), 『最近朝鮮事情要』, 37~38.

46) 박이택(2008), 「식민지기 조선인 인구추계의 재검토 1910~1940」, 『대동문화연구』 p.63.

47) 山本庫太郎(1904), 『朝鮮移住案内』, 民友社, 13~14.

48) 矢津昌永(1904), 『韓國地理』, 丸善, 43~45.

49) 정부재정고문본부(1907), 『한국호구표』, 탁지부인쇄국. 이 통계치는 『통감부통계연보-제1차』(조선총독부, 1911) 등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1908년에는 새로운 호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0) 三輪如鐵(1911), 『朝鮮大邱一斑』, 杉本梁江堂, 大阪, 241~242.

51) 京城商業會議所編(1917), 『朝鮮經濟年鑑』, 440~441. 1910년의 호구수를 『조선총독부통계요람』은 2,750,012호, 13,115,449인이라고 하였다. 같은 해의 조사 자료도 월별 혹은 작성기관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다.

52) 伊東祐穀(1914), 『袖珍世界年鑑』 第8回, 博文館, 268~269.

53) 東洋拓植株式會社(1915), 『改正朝鮮移住手引草』, 東洋拓植, 126~127.

54) 政府財政顧問本部(1907), 『韓國戶口表』, 度支部, 1~2. 이 조사 역시 『韓國水産誌』가 사용한 호구수와 마찬가지로 1907년 5월에 조사한 것이다.

55) 『韓國水産誌』 1권에서 사용한 호구수는 1907년 5월의 조사에 의거한 것이라고 하였다(『韓國水産誌』 人口, 5~6).

전체 호구수는 10,848호, 143,093인이 차이가 난다. 그러나 도의 경우에도 함경북도 72,925호 390,045인, 함경남도는 127,076호 582,463인으로 되어 있으며, 영일군⁵⁶⁾의 호구도 3,476호, 인구 16,931인이다. 이 수치는 모두 『한국호구표』(政府財政顧問本部, 1907)와 같다⁵⁷⁾.

즉 『한국수산지』는 전체 호구에 대한 정보는 『한국호구표』와 차이를 보이지만, 개별적인 수치는 일부 도 및 군의 호구는 『한국호구표』에 의거하고 있다. 일치하는 곳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이고 나머지 도는 호구수가 다르다⁵⁸⁾. 이는 1907년 5월 이후 1909년 12월 『한국수산지』 1권이 간행될 때까지 각 도별로 새롭게 파악된 정보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수산지』의 호구는 『한국호구표』를 기준으로 하면서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파악된 호구는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Table 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07년의 호구수는 대한제국 정부재정고문본부가 최초로 시행한 본격적인 호구 조사의 결과이지만 1909년의 호구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대단히 불완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수산지』의 통계자료를 분석하고자 할 때 과연 『한국수산지』의 호구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한편 『한국수산지』 호구자료의 특징은 연해군의 호구 및 어업자 호구를 중심으로 파악한 점이다. 『한국수산지』 2권부터 4권까지 말미에 「漁事一覽表」(其一)이라는 제목으로 표가 게재되어 있다. 각 표에서는 郡面里洞까지 구분하여 총호구 어업자 호구 등의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를 도 별로 정리한 것이 Table 6이다. 「어사일람표」에서는 咸鏡北道 慶興府 安和面の 총호구 어업자호구를 각각 114호 772인 41호 224인이라고 하였다. 『한국호구표』의 慶興府 安和面

Table 6. The Fishing Household by Province in The Chronicle of Korea Fishery

Province	Household	Population	Seashore		Fishing	
			Household	Population	Household	Population
Hambuk	72,925	390,045	4,288		1,082	
Hamnam	127,076	582,463	14,653		3,258	
Gangwon	138,974	627,833	2,696		553	
Gyungbuk	272,730	1,061,902	5,951		1,538	
Gyungnam	294,783	1,268,100	26,131		4,060	
Junnam	229,945	766,890	71,538		5,405	
Junbuk	157,412	597,393	1,717	6,355	119	447
Chungnam	162,723	641,116	4,871	17,878	1,114	3,248
Chungbuk	115,929	491,717	0		0	
Gyunggi	256,833	1,067,297	7,376		1,010	
Hwanghae	195,985	854,686	6,550		1,160	
Pyungnam	158,144	689,017	1,105		135	
Pyungbuk	138,971	600,119	4,374	18,076	387	1,359
Total	2,183,459 ⁵⁹⁾	9,038,459	146,876		19,434	

56) 『한국호구표』에서는 延日郡으로 되어 있다.

57) 이예지(2010), 『韓國水産誌』의 통계자료와 문제점, 『인문사회과학연구』 11-2, 85~107.

58) 『韓國戶口表』의 戶數는 경상북도 274,338호, 경상남도 283,817호, 전라남도 235,530호 충청남도 164,965호, 황해도, 208,456호이다. 경상남도는 줄어든 반면 다른 도는 『한국수산지』의 호수가 많다.

59) 원문에는 합계가 2,322,430호로 되어 있으나 항목별 합은 2,322,230호이다. 다만 『한국수산지』 2권의 함경남도의 호구수와 『韓國戶口表』에 의하면 72,925호로 되어 있어서, 『韓國水産誌』 1권의 오기로 생각된다. 이에 72,925호로 수정해 둔다.

을 살펴보면, 호구가 129호 811인으로 되어 있다. 다른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산지』의 군 별 총호구는 해당 군의 전체 호구수가 아니라, 연안에 위치한 마을의 호구만을 조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수산지』는 조선 연안의 호구와 漁戶에 대한 최초의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1910년 단계의 漁戶에 대한 유일하고 종합적인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통계자료의 문제점

한편, 「어사일람표」의 호구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조사과정에서 지적인 군 단위 기초 조사의 비통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호구와 어업자호구 항목에는 다시 하위 항목으로 호수와 인구가 설정되어 있지만, 각 군이 보고한 결과는 총호구의 호와 어업자호구의 호만 파악하고 각각의 인구는 파악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함경북도의 경우를 보면, 富寧郡, 明川郡, 吉州郡, 城津府는 총호수와 어호수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漁事一覽表」에서는 총호수와 어호수, 어선수, 그물수, 어전어장수만 도 별로 합계

를 내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두었다. 즉 총인구와 어업인구는 다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계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총호수 및 총인구수는 연안의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연안 마을 전체를 파악한 군도 있는가 하면 한 면에서 대표적인 한 마을만 파악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慶興府의 경우 西面은 西水羅, 海面은 雄基浦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富寧郡의 경우 海面은 板津, 三里面은 沙津, 東面은 雙津과 같이 한 마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 鏡城郡의 경우는 龍城面은 鹽盆洞 浦項洞 五柳洞⁶⁰⁾, 梧村面은 長淵洞 獨津洞 元鄉洞, 朱乙湯面은 錢山洞 執三洞 溫大津洞 南夕津洞 鹽盆津과 같이 연안 마을을 모두 조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령군과 같은 경우는 해당 군 연안 마을의 온전한 통계치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경상남도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수산지』의 총호구가 연안 마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자. 『한국수산지』의 경상남도 호구 자료인 Table 7과 『경상남도도세요람』(이하

Table 7. The Fishing Households of Gyeongsangnamdo Province in *The Chronicle of Korea Fishery* in 1910

Region	Census		Fishing		Ship	Fish net	Fish garth
	Household	Population	Household	Population			
Ulsan	1,722	7,406	487	1,950	159	212	59
Gijang	1,125	4,960	424	1,911	132	206	14
Yangsan	494	1,919	33	133	43	27	
Dongrae	4,418	19,812	588	1,855	240		
Gimhae	308	1,522	43	136	27	16	
Changwon	3,354	14,693	622	1,937	416	211	135
Geoje	3,808		216		180	232	94
Gosung	2,376	11,471	193	795	146	111	47
Sachun	1,024	3,072	160	320	102	32	10
Jinju	141	594	5	23			
Gonyang	1,257	5,115	318	892	42		80
Hadong	148		86		21		5
Namhae	5,054	21,444	405	1,216	167	186	67
Uldo	902	4,995	480	2,095	230		
(cal.)	25,229	97,003	3,580	13,263	1,675	1,233	511
Total	26,131		4,060		1,897		

60) 조선총독부의 5만분의 1지도에는 품柳洞으로 되어 있다.

Table 8. The Households and Fishing Ships of GyungSangnamdo Province in *The General Survey of GyungSangnamdo Province*(1911)

Region	Household	Population	Fishing household	Fishing population	Fishing boat	Ratio1	Ratio2
Ulsan	5,695	27,968	255	802	225	4.48	88.24
Yangsan	552	3,039	35	237	40	6.34	114.29
Gijang	2,708	14,514	424	1,911	107	15.66	25.24
Busan	13,793	71,114	306	1,833	158	2.22	51.63
Gimhae	2,933	14,969	33	182	27	1.13	81.82
Masan	11,469	60,755	302	1,244	357	2.63	118.21
Gosung	7,338	36,185	218	1,090	161	2.97	73.85
Yongnam	10,009	45,622	679	1,328	500	6.78	73.64
Sachun	2,911	14,654	308	478	114	10.58	37.01
Jinju ⁶¹⁾	473	2,477	3	6	0	0.63	0.00
Gonyang	3,783	19,155	48	77	42	1.27	87.50
Hadong	699	3,254	40	107	48	5.72	120.00
Namhae	10,151	43,264	461	1,457	158	4.54	34.27
Geoje	8,310	43,303	299	1,266	278	3.60	92.98
Uldo	998	5,855	62	183	230	6.21	370.97
Milyang	5,411	25,453	40	85	0	0.74	0.00
Total	87,233 ⁶²⁾	431,581	3,513	12,286	2,445	4.03	69.60

『도세요람』의 호구자료인 Table 8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수산지』의 총호구는 연안 마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아가서 Table 7은 연안에 위치한 면리동을 단위로 호구와 어호구를 조사한 것이고, Table 8은 연안에 위치한 군의 전체 호구와 어호구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수산지』의 경우 그 연안 마을도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니다. 두 표를 비교해 보면, 어호구의 수가 『한국수산지』 쪽이 많다. 『한국수산지』의 조사 과정과 통계자료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세요람』의 조사보다 어호는 500호, 어구는 적어도 1,000명 정도가 많은 것은 『도세요람』 쪽이 더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업과 어업을 겸업하는 경우 『한국수산지』에서는 어호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도세요람』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어호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 경우가 발생했을 수 있

다. 어선수는 『도세요람』 쪽이 더 많은 것을 보면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한국수산지』 본문의 기재와 말미의 「어사일람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차이를 정리해 보면, 1) 본문의 기재와 「어사일람표」의 통계치가 다른 경우, 2) 본문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어사일람표」에는 자료가 없는 경우, 3) 본문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어사일람표」에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1) 吉州郡 日下津의 경우 총호수가 53호라고 하였는데 「어사일람표」에는 50호라고 하였고, 어호 및 어선에 대한 기재는 없는데 「어사일람표」에는 어호 18호 어선 5척으로 기재하였다. 明川郡 三達津의 경우 본문에서는 총호가 39호라고만 하였으나, 「어사일람표」에서는 총호 29호 어호 4호 어선 2척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영일군의 경우도 본문에 北面浦

61) 적화곡면의 호구만을 기록한 것이다.

62) 원문에는 87,413호로 되어 있으나 합산 결과는 87,233호였다. 『한국수산지』는 면 단위로 집계된 것이고, 『경상남도도세요람』은 군 단위로 집계된 것이므로 양자 사이의 차이가 크다.

項의 경우도 전체 호구 400호 어선 7척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어사일람표」에는 총호 397호 어선은 2척이라고 하였다. 蔚山郡 江東面의 경우도 본문에서는 亭子浦에 인가 68호 어선 9척이라고 하였는데, 「어사일람표」에서는 총호수 85호 어선 2척이라고 하였다. 2) 明川郡 國津의 경우, 인가 120호 명태의 1개년 생산액 70태 가격으로 27관 200문이라고 하였으나, 「어사일람표」에는 아예 國津이 들어 있지 않다. 앞에서 제시한 당진군의 경우도 본문에서는 高山面의 九老之里와 長項, 下大面 등도 언급하고 있지만 「어사일람표」에는 들어있지 않다. 外孟面의 경우도 通丁 油峙 松洞 讚洞 外倉 三串의 총호구와 熊浦 德巨도 연안 마을로 언급하였지만, 「어사일람표」에서는 高山面은 다루지 않았고, 外孟面에서는 松洞(松堂) 油峙 德巨 通丁만 다루었다. 즉 본문과 「어사일람표」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吉州郡의 洋島의 경우, 본문에는 전체 호 및 어호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어사일람표」에는 양도진에 총 19호 어호 9호 어선 3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길주군 대포진의 경우는 본문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나, 「어사일람표」에는 총호 12호 어호 8호 어선 2척으로 되어 있다. 海南군의 경우에도 여러 마을에 대해서 지리적인 정보나 그물을 설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으나 정작 호구나 어선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렇지만 「어사일람표」에서는 어호와 어선의 수를 여러 마을에 대해서 기록하였다⁶³⁾.

한편, 明川郡 下古面의 예를 보면, 본문에서는 葛麻浦, 國津, 佳湖, 黃岩津, 厚生津의 5개 마을을 다루었으나, 「어사일람표」에서는 葛麻津 東湖津 治宮津 露績津 佳湖津 仙倉津 新津 黃岩津 厚里津 井湖津의 10개의 마을에 대한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다.

본문 내용의 조사와 「어사일람표」의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정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海境북도의 경우 본문은 도별 책임자가 직접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어사일람표」는 군 별로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사일람표」에 보이는 총호수, 어호수, 어선수가 군 별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이 다루고 있는 마을보다 많으며 총호수 등의 정보가 자세하므로 군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별 책임자가 현지가 가서 조사할 경우는 정확한 총호수와 어호수 어선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앞장에서 제시한 울산군 海南군 등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현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 즉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지리적 정보 및 어업현황 및 농업현황, 현지 주민에게 물어서 알 수 있는 어획고나 漁稅의 납부 실태 등이 자세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정보가 자세한 것은 어촌 마을로 판단하고 상륙해서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여가에 海안에서 漁採를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군 별 보고서는 당연히 어업과 관련된 조사였기 때문에 어업과 관련된 내용만 조사하였을 것이므로 농업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한국수산지』의 통계자료는 불완전한 자료이지만 『한국수산지』부록의 자료로 일부 보완하여 작성한 전체 호구 및 연안 호구, 연안 호구 중의 어호의 비율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Table 9와 같다. 총호 중 어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3% 미만이며, 어호 3호가 어선 1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⁴⁾.

63) 海南군의 경우에는 총호구수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어호와 어선수만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서 군 별 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어호와 어선수 그 중에서도 어선수는 반드시 파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64) 다만 연안호와 어호 및 어선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일정한 오차를 고려해야 한다.

Table 9. Statistic of Fishing Household by Region

Region	Total household	Seashore household	Fishing		Ratio1 ⁶⁵⁾	Ratio2 ⁶⁶⁾	Ratio3 ⁶⁷⁾	Ratio4 ⁶⁸⁾
			Household	Ship				
Hambuk	72,925	4,288	1,028	402	5.88	23.97	1.41	39.11
Hamnam	127,076	14,653	3,258	923	11.53	22.23	2.56	28.33
Gangwon	138,974	3,657	994	246	2.63	27.18	0.72	24.75
Gyungbuk	272,730	5,951	1,538	623	2.18	25.84	0.56	40.51
Gyungnam	294,783	25,229	3,580	1,897	8.56	14.19	1.21	52.99
Junnam	229,945	43,582	5,409	1,092	18.95	12.41	2.35	20.19
Junbuk	157,412	1,717	119	90	1.09	6.93	0.08	75.63
Chungnam	162,723	4,871	1,114	205	2.99	22.87	0.68	18.40
Chungbuk	115,929	0	0	0	0.00	0.00	0.00	0.00
Gyunggi	256,833	7,376	1,010	384	2.87	13.69	0.39	38.02
Hwanghae	195,985	6,550	1,160	543	3.34	17.71	0.59	46.81
Pyungnan	158,144	1,105	135	87	0.70	12.22	0.09	64.44
Pyungbuk	138,971	4,374	387	188	3.15	8.85	0.28	48.58
Total	2,322,430	151,250	19,821	6,680	6.51	13.10	0.85	33.70

IV. 결 론

이 글에서는 『한국수산지』의 조사 방법과 통계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는 크게 두 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도 별 책임자(技手)와 군의 조사자이다. 도 별 책임자는 현지에 직접 가서 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편집자에게 제출하였다. 군에서는 『한국수산지』 2권부터 그 말미에 게재되어 있는 표의 자료를 작성하여 편집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를 받은 편집자는 도 별 책임자가 조사한 내용과 군이 제출한 조사자료를 수합하였지만, 이 두 가지 자료를 정밀하게 대조하거나, 군 별 기재의 차이를 통일하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군이 조사한 내용은 가장 충실한 것은 漁戶와 漁船의 수이다.

『한국수산지』 1권의 호구자료는 『한국호구표』를 바탕으로 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각 권의 호구자료는 연해 마을의

호구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니다. 특히 현지 조사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군의 조사를 통해서 보완해 줄 것을 기대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군의 조사도 일관성이 없고 빠진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본문의 내용과 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수산지』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과 표의 내용을 대조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수산지』는 1910년을 전후한 조선 수산업의 현황과 연안 마을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임은 분명하다. 당시 조선의 총호 중 어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3% 미만이며, 어선은 어호 3호가 1척 정도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Bureau of Fishery (1909–1911), *The Chronicle of*

65) 총호수 중 연안호수의 비율이다.
 66) 연안호수 중 어호수의 비율이다.
 67) 총호수 중 어호수의 비율이다.
 68) 어선수를 어호수로 나눈 비율이다.

- Korea Fishery(1-4)*, Seoul, Korea.
- Bureau of Fishery (1911), *The Chronicle of Japan Fishery and Collecting*, Tokyo, Japan.
- Conference of Commerce in Seoul ed. (1917), *Yearbook of Korean Economy*, Seoul, Korea, 440-441.
- Head Office of Financial Advisor of Government (1907), *Table of Households in Korea*, Seoul, Korea, 1-2.
- Ito, Y. (1914), *Pocket World Yearbook 8*, Tokyo, Japan, 268-269.
-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1912), *The Newest General Survey of Korean Situation*, Seoul, Korea, 31-32.
- Jo, C. Y. and Kim, H. T. (2005), "The Economic-Geographical Consideration of Fisheries of the West Coast Area, Chungnam in the 1910s in Hanguoksusanji,"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8 (1), 153-169.
- Kang, J. S. (2011), "The Traditional Fishery and Japanese Fishery at the Stage of the Publication of The Chronicle of Korean Fisheries(1908),"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27, 129-149.
- Kokumin Newspaper (1917), *Yearbook for Citizen*, Tokyo, Japan, 561.
- Kuzu, S. (1903), *The Guide for Fishing in Korean Sea*, Tokyo, Japan, 1-4.
- Lee, Y. H. (2011), "The Residency-General's survey and invasion on Joseon,"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Studies*, 39, p.242.
- Lee, Y. J. (2010), "Statistics of The Chronicle of Korea Fishery and Problems," *Journal of Human and Social Studies*, 11 (2), 85-107.
- Miwa, N. (1911), *A Point of Daegu in Korea*, Osaka, Japan, 241-242.
- Oriental Colonial Company (1915), *Revised Brief Guide for Immigration to Korea*, Seoul, Korea, 126-127.
- Park, I. T. (2008), "Reconsideration of Population Estimates in Colonial Korea 1910~1940," *Journal of Eastern studies*, 63, 331-373.
- Provincial Government of Gyeongnam (1911), *The General Survey of Gyeongsangnamdo*, Jinju, Korea.
- Rhee, K. W. (2011), "The Compilation and the Aims of The Chronicle of Korea Fishery,"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27, 105-120.
- Rhee, K. W. (2012), "On the Japanese Investigations for the Korean Sea during Meiji Period,"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43 (3), 1-22.
- Sim, M. J. (2011), "The Japanese Living and Fishery Campaign at Pusan Area in Compilation Time of The Chronicle of Korea Fishery,"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28, 573-595.
- Sin, B. B. (2010), "Situation of Fishing in Busan Gyeongnam Area through The Chronicle of Korea Fishery," *Journal of Human and Social Studies*, 11 (2).
- Yamamoto, K. (1904), *The Guide of Immigration to Korea*, Miyusya, 13-14.
- Yazu, M. (1904), *The Geography of Korea*, Maruzen, 43-45.